

담양군, 민선 8기 공약 “군민 체감 정책 중심 실현”

정철원 군수, 부서별 공약 1:1 점검
부서 책임 강화 실현 가능성 확인
군민 삶 밀접한 분야 중심 살펴
투명한 이행 과정 공유 체계 마련

전라남도 담양군이 민선 8기 군정의 공약 점검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실행 체계를 가동했다. 각 부서의 실천계획을 군수가 직접 심층 점검하는 방식으로, 형식적 보고에서 벗어나 실행 가능성과 책임이행을 동시에 강화했다.

15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송강정실에서 ‘공약 세부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기회가 넘치는 활력도시 담양’ 실현을 위한 공약 이행 방안을 부서별로 집중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발표 방식이 아닌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철원 군수가 1:

1로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광·지역활성화 △청년·신혼부부 정책 △복지 △교육 △농업·먹거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공약이 중점 논의됐다.

관광·지역활성화 분야에서는 ‘머무는 관광’을 위한 주민 주도형 축제 활성화 방안이, 청년 지원책으로는 군북부 청년 상해보험, 공공 웨딩홀 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 분야에선 어르신 영화 관람 지원, 아이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가, 교육 부문에선 원어민 영어교실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계획이 보고됐다.

농업 정책으로는 스마트팜 기반 무균 딸기 원묘 공급 시스템 구축, 농어민수당



지난 13일 담양군이 송강정실에서 공약 세부실천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담양군 제공

확대, ‘담양형 먹거리 지원센터’ 설치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담양군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각 부서가 공약 이행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행 현황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공약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군민과의 약속이자 책임 있는 출발점”이라며 “부서별로 현실 가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나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위반시 행정처분·수사의뢰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용 실태 점검 및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부정 유통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전라남도의 ‘2025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도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광역 단속이다. 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은 현장 방문과 유선 조사, 시스템 상 이상 거래 내역 확인을 병행해 진행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김용의 기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장성군, 24만여필지 29일까지

전라남도 장성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24만31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가 총합은 5조802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평균 1.62%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2나노산업 단지를 조성 중인 진원면(2.68%)이다.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 주소를 검색하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장성군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6월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390-76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유봉현 기자



최근 목포시청 직원들이 관내 도서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도서지역 해안가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전라남도 목포시가 최근 도서지역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해양환경 보호에 나섰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정화 활동은 목포시와 어민단체 등 약 30명이 참여해 바다에서 밀려온 각종 해양쓰레기와 일회용품 등을 수거함으로써 해양오염

을 예방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했다.

정화 활동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홍보도 진행됐다.

시는 바다 및 항포구에 생활쓰레기나 폐어구를 무단 투기할 경우 과태료가 부

과될 수 있으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또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안내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어민이나 유관단체가 함께하는 연안 정화의 날 운영과 다양한 해양 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과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곡성군, 세계장미축제 오늘 개막

전라남도 곡성군은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16일부터 25일까지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장미축제는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장미의 매력에 흠뻑 빠진다는 의미의 ‘장미로 물드는 하루, 올테이로즈’를 주제로 개최된다.

개막 오프닝 행사를 16일 오후 7시에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퍼레이드로 시작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지역예술단체 5개 팀과 생활개선회가 전문 공연단과 함께 기차마을에서 올테이로즈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장미축제 오프닝 주제가곡은 대한민국 최초의 쇼파이어 그룹 하모나이즈가 맡는다. 하모나이즈의 다양한 퍼포먼스로 장미의 화려함과 우아

함을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군은 올해 장미공원 야간경관과 야간 버스킹 공연 등을 확대하면서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장미의 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관광공사 공모로 제작된 곡성장미축제 캐릭터 ‘로지프렌즈’가 팝업스토어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장미공원내 숨겨진 로지프렌즈를 찾는 ‘로지야 어딴니’라는 이벤트를 통해 인생네컷 무료 촬영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지역민 참여 공연으로 증명이 된다.

올해는 45개 팀 800여명이 ‘곡성풍류’ 코너를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내 새마을회, 생활



개선회, 청년회의소, 축협, 농협도 축제 개막퍼레이드와 축제장 청소 및 각종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축제를 이끈다.

군은 안전한 축제를 위해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추진하고 군안전관리심의회도 마쳤다.

인파관리를 위한 실시간 인파통계관리시스템에 가입해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관리하고 음식물배상책임이 포함된 축제안전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영암군, 농업분야 에너지 대전환 내연기관 농기계 친환경 장치로

전라남도 영암군이 지난 13일 군청에서 ‘내연기관 농기계 전동화 전환 및 전주기 실증사업’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용역은 농업 분야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것으로 내연기관 농기계를 태양광 충전 배터리 구동 장치로 전동화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삼호읍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도 함께 했다.

최종 보고서는 총 90억원 규모로 5년 동안 수행되는 실증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전동화 실증기반 구축, 임대농기계 전동화 전환 및 실증 등을 제시했다.

전동화가 비교적 쉬운 임대 농기계 승용예초기, 목재파쇄기 등을 선정해 영암군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전동화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영암=한교진 기자

착한가격업소 신규 4개소 추가 목포시, 총 45개소로 확대 운영

전라남도 목포시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가격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4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 1년 미만 업소를 제외한 기존 26개소에 대해 가격·위생·정결 등 행정안전부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일제 점검하고 이중 1개소를 제외한 25개소를 재지정했다.

지난 3월 신규 신청을 받아 점검표에 의한 현장실사와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 착한가격업소는 모두 45개소로 운영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농산물 꾸러미 400개 전달 광주 5개 구 취약계층 대상 농협광주본부

농협광주본부는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5개 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촌사랑 우리농산물 꾸러미’ 400개(16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지난 4월 범농협 광주본부 영농지원발대식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광주광역시 및 5개 구와 협의해 나눔 대상을 선정해 진행됐다.

꾸러미는 동구 32가구, 서구 72가구, 남구 68가구, 북구 136가구, 광산구 92가구 등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배송되어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농촌사랑 우리농산물 꾸러미 나눔사업’은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의 자발적 상생 협력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호 농협광주본부장은 “농산물 꾸러미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광주본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